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5일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불축법요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충북 증평군 장동시장에서 즉흥 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시

대선 D-27, 호남이 보는 '국힘 단일화 내홍, 이재명 사법리스크'

국민의힘 비전 없이 '반명 단일화' 몰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사법리스크 전면전 '비상계엄·탄핵 대선' 호남민 표심 주목

대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으나 보수 진영은 단일화를 놓고 충돌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쟁점이 되는 등 선거 정국이 혼돈의 연속이다.

보수진영의 비전 없는 '반명(반 이재명) 단일화'와 대법원의 이례적인 파기환송 과정을 보면서 진보 성향이 강한 호남 유권자 층이 결집하는 모양새다.

6일 광주·전남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 시민사회는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세력 청산 등 사회대개혁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조기 대선 정국이 곧바로 시작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대선 체제로 전환해 정당과 시민사회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졌다.

국민의힘은 경선을 거쳐 김문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음에도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 여부를 놓고 내홍을 벌이고 있다.

비상계엄 총리였던 한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지역 방문지로 국립5·18민

주묘지를 찾은 것이 악수였다.

한 후보는 광주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도들이 일으킨 것으로 지칭하는 '광주사태'로 표현하며 "저도 호남사람입니다"라고 호소해 지역민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한 후보는 광주시민이 마치 자신이 호남 사람인 것을 잘 몰라서 참배를 반대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지역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의도적인 발언이라면 비열한 것이다. 광주시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지역민들은 국민의힘 김 후보와 한 후보의 단일화 갈등이 정책이나 비전 없이 정치공학에만 몰두한 것으로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4일 광주를 찾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정치공학적 빅텐트는 의미가 없다"며 단일화 참여에 선을 그었다.

지역 시민사회는 민주당의 정권 장악 욕망과 좌고우면이 현재의 혼란스러운 정국을 초래했다고도 질타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내란세력에 대한 민주당의 좌고우면과 내란세력과의 적절한 타협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미디 같은 상황을 불러왔다"며 "정치공학적 선거 논리에 빠져 사회개혁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대선이 비상계엄과 탄핵 후 처리하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 단일화 갈등과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이 오히려 민주당에는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확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상계엄 당시의 장관과 국무총리 간 단일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동력이 적은 데다, 대선을 불과 28일 앞두고 있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어내는 데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사법부와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후보의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며,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대법원의 초단기 파기환송을 놓고 시각이 엇갈리고 있으나, 광주·전남 지역 시민사회는 물론 법조계까지 사법부 비판에 가세하고 있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방송토론 과정의 일부 발언을 문제 삼

은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당사자가 아닌 낙선자를 기소하는 것도 선거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다.

파기환송 전에는 이 후보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그에 대한 비호감도의 일부를 차지했으나, 이례적인 속도를 거쳐 파기환송이 되자 오히려 이 후보가 사법부의 정치 판결로 박해를 받는 이미지도 형성됐다.

광주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탄핵 당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치 세력이 왜 다시 국정을 맡아야 하는지 유권자의 설득을 얻어내야 하는데 단일화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스시

광주시, 세계인권도시포럼 5월 15일 개막

김대중센터서 사흘간... 세계 평화·인권 활동가 등 600여명 참가
전쟁·폭력 맞서 인권·평화 모색... 개최시기 10월서 5월로 변경

세계 평화·인권 활동가들이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광주에서 모든 반평화적 상황에 맞서 누구나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인권도시 간 연대 방안을 모색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5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15회째를 맞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은 광주시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유네스코(UNESCO) 등 국제기구가 공동주최한다. 올해부터 5·18기념주간에 개최해 더 많은 이들이 광주를 찾고, 민주·인권·평화의 오월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개최 시기를 10월에서 5월로 옮겼다.

올해 포럼 주제는 '평화와 연대: 전쟁과 폭력에 저항하는 인권도시'다. 세계적 인권플랫폼으로 작동하고 있는 이

포럼을 통해 전 세계 인권 도시들과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쟁과 폭력에 맞서 인권과 평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은 개·폐회식, 전체회의, 주제회의, 특별회의, 네트워킹회의, 국제인권연수, 특별·부대행사 등 7개 분야, 27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국내외 인권 전문가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 친숙한 연사들도 참여한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은 15일 오후 2시 개막한다.

개회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국내·외 인권 관계자, 초청 인사, 대학생, 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회 기조연설은 서승 우석대학교 석좌교수가 맡는다. 서 교수는 국제 인권·평화운동가로, 동아시아 평화와 반고문운동의 상징적 인물이다. 1971년 유학생 신분으로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 '재

일교포학생 학원점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년간 옥고를 치렀다. 서 교수는 1974년 국제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선정한 '세계의 양심수'로 국제사회에 주목받았다.

개회식 직후 '평화를 향한 지구적 연대'를 주제로 한 전체회의가 열린다. 신행식 (사)국민주권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반평화적 상황과 인권공동체 미래'를 주제로 발제한다. (2면에 계속) /박도일 기자

빛과 바람이 기억하는 500년의 흥겨움

함께 만드는 영광
같이 누리는 군민

법정포토만화축제

2025.5.29. (목) ~ 6.1. (일)
단오마당(단오제전수교육관)
축제마당(법성포뉴타운문화광장)

주최/주관 (사)법성포단오제보존회 / 법성포단오제전위원회 후원

국가유산청 전남남도 영광군 영광군의회
한국수력원자력주주 KH 영광수원 굴비농협